과학기술로 비약의 활로를 열어나가겠다

◇ 최치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과 나눈 대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과학기술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기 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심정은 남다르리라고 본다.

최 치 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인 과학기술의 힘을 강화하고 비약적인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해 백배로 분발분투하고있다.

기 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최 치 명: 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된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이를 위해 새기술개발 및 도입과제를 정하고 각 부문연구원 및 연구소, 공장, 기업소들에 시달하여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촉매부문 연구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비하며 농업연구기관들을 첨단과학연구기지로 꾸리고 국가적인 분석중심들에 분석 및 측정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교육, 과학연구기관들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연구종자, 연구과제를 바로 정하도록 하고 경제실천에서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창조적두뇌를 키워주기 위한 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개선하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나가고있다.

과학기술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열의가 큰 은을 내도록 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해나가겠다.

감나무고장의 가을풍경

천고마비의 계절에 들어선 요즘 가는 곳마다 무르익은 이채로운 감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특히 감나무가 많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안변군 천삼리에 가면 어딜 가나 감나무열매들로 뒤덮인 마을들을 볼수 있다. 올해에도 이 고장에서는 집집마다 붉은 감들이 많이도 달리였다.

천삼리에 사는 김철남가정에서도 집주변에 20여그루의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붉은 감들을 바라보는 집주인들의 모습이 감나무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집주인인 김철남은 《나무 한그루당 최고 150kg정도의 감이 열려 해마다 감을 2t이상 따군 했는데 올해에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3t은 넘을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감나무는 한번 심으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 감은 당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많기때문에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감은 그저 먹기도 하고 곶감을 만들기도 하며 껍질은 말리워 감차를 만든다. 땅에 떨어진 감은 단지에 사탕가루와 적당한 비률로 넣어 3개월정도 두면 기관지천식에 좋은 감술이 된다. 지금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서도 우리 집처럼 많은 감나무를 심고있다. …

해마다 많은 감을 수확하여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에게 보내주고 또 건설장들에 지원사업도 한다고 하면서 감나무를 많이 키우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감나무집주인 내외의 자랑은 끌이 없을 상싶다.

그의 가정만이 아닌 모든 세대들에서 감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기 지방의 특성을 살려 감나무를 정성껏 심고 자래우며 유족한 생활을 꾸려가는 아름다운 고장의 주인들.

과일향기가 더욱 넘쳐날 감나무마을의 래일,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될 아름다운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감나무고장의 가을풍경이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조선의 국가상징 풍산개

풍산개는 조선개의 고유한 특성을 다 가지고있는 조선의 토종개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닮았다고 할수 있다.

풍산개는 매우 령리하고 평소에는 성질이 온순한 개이며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잘 따르지만 적수에 대하여서는 맹수와 같이 사납다.

풍산개는 서양개에 비하여 몸집은 작지만 대단히 날래고 이악하며 그 어떤 맹수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개들은 싸울 때면 보통 적수의 목등을 물어뜯군 하지만 풍산개는 정면공격으로 단숨에 적수의 숨통을 물어제끼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며 자기를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조선민족의 슬기와 용감성 그대로라고 할수 있다.

또한 긴밀한 협동으로 크고 사나운 짐승도 능히 감당해내는 풍산개의 기질에는 서로 돕고 위해주며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특성이 비껴있다.

풍산개는 추위에 잘 견디고 생활력이 강하며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대단히 높다. 먹성이 좋으며 거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것으로 하여 어디서나 기를수 있는 우월한 점을 가지고있다.

풍산개는 수천년세월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 적극 리용되여왔다. 경계심이 강한 풍산개는 감시를 잘하고 집을 잘 지킬뿐 아니라 사냥물을 쫓거나 제압하는데서 참매와 함께 없어서는 안될 기본수단이였다.

여러 지방에서 자기 주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풍산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있는데 과거 풍산일대 반일의병부대들에서 싸움과 보초, 사냥에 풍산개들을 많이 리용하면서부터 그 용맹성과 이악한 기질이 세상에 소문나고 더욱 유명해졌다.

본사기자

금강산화장품

녀성들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금강산합작회사에서 생산하고있는 질좋은 금강산화장품이 공화국의 녀성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금강산화장품들은 국가품질인증과 GMP인증을 받은 제품들로서 높은 품질과 완벽한 위생안전성을 담보하고있다.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화장품을 세계와 경쟁하는 명제품, 누구나 즐겨 찾는 명상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금강산합작회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원가를 낮추면서도 높은 질을 보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모든 제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금강산화장품은 녀성들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인기제품으로 사랑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요리

추 어 탕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리용하여 만든 탕이다.

미꾸라지는 로화방지, 독풀이, 간염,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치료에 좋으며 칼시움부족으로 인한 질병치료에서도 효과가 높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꾸라지 150g일 때 소고기 50g, 두부 40g, 미나리 20g, 풋고추 30g, 쑥갓 20g, 고추장 10g, 콩된장 15g, 소금 20g, 생강 5g, 기름 15g, 파 10g, 마늘 3g, 후추가루 0.2g, 맛내기 0.2g, 료리용술 10g을 준비한다.

생강은 얇은 편으로 썰고 파의 절반량은 길이가 3~4cm 토막으로, 나머지는 송송 썰어놓는다. 소고기는 보드랍게 다진다. 두부는 길이 3cm, 너비 2cm, 두께 0.5cm 되게 썰어놓는다.

끓는 연한 소금물에 절반량의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한소끔 끓여 양념물을 만든다. 여기에 깨끗이 씻어 썰어놓은 미꾸라지를 넣어 데쳐낸다.

달군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나머지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볶다가 향기가 나면 다진 소고기를 두고 볶는다. 여기에 미꾸라지를 넣고 같이 볶다가 술을 약간 치고 물을 미꾸라지의 3배정도 되게 부어 1시간 30분정도 푹 끓인다.

미꾸라지가 푹 무르면 된장과 고추장, 두부, 쑥갓, 미나리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송송 썬 풋고추와 파, 다진 마늘, 맛내기, 후추가루를 넣어 맛을 들인다.

본사기자

사 화

《쇠도리깨다!》 (3)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아버지는 환갑을 넘긴 늙은이일뿐 아니라 왜적은커녕 다른 사람들과도 싸움이란 전혀 모르는 순박한 농사군일따름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낟알이나 털어내는 농쟁기로 적과 싸울 용단을 다 내렸단 말인가. 싸움마당에 벌써 열번나마 뛰여들었던 나도 생각조차 못할 일이거늘… 하기는 병아리를 거느린 엄지닭이 독수리에게 달려든다지 않는가!

현노술이는 이 마당에서 부모의 은공이 얼마나 큰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하여 그는 맨땅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앞에 엎드렸다. 둘러서있던 마을사람들은 좀처럼 일어설줄 모르는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날 밤이였다.

현노술이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간이나마 눈을 좀 붙이려고 밀짚북데기우에 드러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도리깨를 틀어잡고 놈들에게 달려드는 아버지의 성난 범같은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들고 《도리깨루라두 왜놈을 맞받아치니 가족이 살아나구 밀이 구원됐구만!》, 《도리깨에 힘이 있다, 힘이!》라고 하던 이웃들의 경탄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휘둘러치는 병장기가 꼭 필요하다. 아버님이 도리깨를 휘둘러 적을 잡은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군들이 지금 쓰는 도리깨를 그대로 싸움마당에서 병장기로 쓸수야 없지 않는가. 아버지의 도리깨는 원쑤 한놈을 잡고는 부러져나갔다. 병장기는 결코 이래서 안된다. 하지만 어쨌든 적을 잡은 엄연한 사실은 그것을 든든하게 고쳐만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병장기가 될수 있다는 단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끈덕지게 떠날줄 모르며 졸음을 쫓아버리는것이였다.

이러한 생각과정은 농군의 병들모두가 도리깨명수들이라는 현실과 이어지면서 크게 고무하였다.

(도리깨명수, 이것이 큰 밀천이다. 이 밀천이 없이는 도리깨를 아무리 고쳐놓아도 소용이 없다. 우리에겐 이런 밀천이 있으니 도리깨가 병장기로 개조되기만 하면 당장 큰 은을 낼수 있다!)

궁리를 거듭할수록 신심이 생겨났다. 그러느라 노술은 동이 트는것도 알지 못하다가 사위가 훤해서야 날이 밝은줄 알고 벌떡 일어서며 결심을 내렸다.

《필도와 의논하자.》

홍분한 그가 아침밥생각도 잊은채 대문밖을 막 나서려는데 뜻밖에도 의병대장 김만수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대장은 그에게 《도리깨로 왜놈을 잡은 자네의 부친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길일세.》하고 찾아온 목적을 밝혔다. 마당안으로 들어와 현로인을 만난 대장은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를 한 다음 노술이 부친께서 참으로 장한 일을 했다고, 왜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장거라고 격찬을 한데 이어 따라온 일행을 둘러보며 우리 봉산사람들모두는 그가 누구든지 현로인의 기백을 본보기로 삼아 불굴의 정신으로 싸우자고 절절히 호소하면서 그러면 왜적들은 반드시 쫓겨가고말것이라고 확신을 표시하였다.

노술이는 대장이 떠받들어 올리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돋보였으며 아울러 아버지의 그 일을 그렇게도 높이 사주는 대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필도를 찾아 걸음을 다그치는 노술이의 귀에는 대장의 호소가 끊임없이 울려왔다. 그는 알았다. 대장의 호소를 제일 앞장에서 실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인 줄을…

노술이와 필도는 한고향친구로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림자마냥 서로 붙어다니는 사이였다.

노술이의 진지한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난 필도는 《도리깨가 나무로 되여 약해서 탈이지. 든든하기만 하다면야 왜놈들을 휘둘러쳐서 많이 잡는데서야 그걸 당할 병장기가 없지. 우리네 농군들이야 도리깨질로 잔뼈가 굵었으니 그걸 다루는데선 막힐게 없고, 우리 농군들의 도리깨질솜씨에 비기면 의병들의 창칼질은 한참 서툴러… 그런데 자네가 날 찾아와 도리깨소릴 꺼내는건 자네 부친께서 왜놈친 사실을 본보기로 삼은 모양인데…

충분히 그럴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보게. 부친께서 그때 왜놈대가리를 면바로 때리지 못하구 어깨나 허리쯤 쳤다면 어쩔번 했을가 하구 말이네.》 하고 미타한 의문으로 말끝을 맺었다.

《?!》

노술이는 말문이 막혔다. 필도의 우려는 괜한것이 아니였다. 그때 정말 아버지의 도리깨가 왜놈의 골통을 면바로 쳤으니 망정이지 어깨나 허리쯤 쳤더라면 놈은 죽지 않고 반격을 가했을것이였다.

그러니 도리깨가 마땅히 병장기로 되자면 그것이 어깨를 치면 어깨가 떨어져나가고 허리를 치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듯 굳세여야 하는것이다.

그냥 물러서기에는 너무도 아수하여 노술은 또 입을 열었다.

《누가 농쟁기 도리깨가 약한줄이야 모르나. 어떻게 든든히 만들 방도, 어디를 쳐서든 꺼꾸러뜨릴 방도만 찾으면 되지 않겠나 말야.》

《방도? 방도라면 도리깨 전부를 무쇠로나 만들어야겠는데… 저 옛날 장수들이 쓰던 철편이나 철퇴처럼 말이지. 우리 농군들이 도리깨질에는 능수이지만 무쇠도리깨를 다뤄낼 힘장사들이야 아니지 않는가, 응? 설사 그걸 만든다고 하세. 그럼 밀쇠는 어디 있나? 쇠쪼박이란 금같이 귀한 세상에…》

《…》

필도의 말이 옳다. 장부와 두가닥도리깨아들 그리고 꼭지까지 부분품 세개를 모두 무쇠로 만든다면 나무로만 된것보다 가량없이 무거울터인데 그것을 다뤄낼 힘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또 그것을 만들 쇠붙이는 또 어데 있는가. 집들마다에 있는 쇠붙이란 부엌의 솥과 호미, 낫가락뿐이다. 그나마 호미와 낫은 일군 하나에 한가락밖에 차례지지 못하거나 다 닳아서 그루터기만 남은것들을 억지로 쓰고있는 형편이다. 필도의 말대로 쇠붙이가 금처럼 귀한 세상이니…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청화백자룡구름무늬항아리

청화로 룡과 구름을 장식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흰자기항아리이다.

높이 65.1cm, 아구리직경 17cm, 밑직경 7.5cm이다.

이 자기는 뚜껑이 있는 푸른무늬항아리로서 곧추 뽑아올린 목과 쭉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훌쭉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여 매우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항아리의 몸체에는 청화로 한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낚으려고 구름속을 헤가르며 꿈틀거리는 힘찬 모습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이 장식그림은 하나의 우수한 회화작품에 견줄만큼 훌륭한것으로서 그릇의 형태와 잘 어울려서 항아리의 공예적가치를 한층 돋구어준다.

이 유물은 청화백자가운데서도 그 형태와 빛갈, 장식그림 등이 생동하고 아름다운 우수한 작품중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